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베를린서 1:21)

주관총현

발행처: 대평교회
창로: 충청남도 서산시 장남동 약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진

'99 전반기 성경연구원 개강

말씀을 배우고 행하고 전하는 일꾼 양성의 요람

주간성경공부, 교사·찬양대원양성부, 직분자 양육반

2월 28일 주일 찬양예배시 개강예배, 3월 14일까지 등록 가능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죽에 있어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일 듯하게 하기 위해' (딤후 1:6) 말씀을 힘써 배우고 경건하고 전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다름과 허영으로 무익한 일에 빠지곤 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매년 전후반으로 진행되는 성경연구원 각 강의들에 적극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성숙과 성장의 큰 기쁨이 있다.

이제 금년도 전반기 성경연구원이 2월 28일 개강예배를 기점으로 3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16주간에 걸쳐 시작된다.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 이상의 과정에 참여하여 말씀 배우기를 힘쓰며,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며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르는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금년에 개설되는 각 과정의 과목 및 강사, 강의 일정 등은 아래와 같다.

- (1) 주간 성경공부
- 크로스웨인:
- 크로스웨이2회, 오전 10시, 조문환 목사
- 크로스웨이3회, 오후 7시, 차병준 목사
- 크로스웨이11수, 오후 1시 40분, 김동석 목사
- 크로스웨이2수, 오후 1시 40분, 박경환 목사
- 크로스웨이3수, 오후 1시 40분, 전영준 목사
- 크로스웨이4수, 오후 1시 40분, 김희수 목사
- 크로스웨이11독, 오전 11시 30분, 이종학 목사
- 크로스웨이4독, 오후 7시, 권상현 목사
- 본문성경공부반:
- 다니엘(화, 오후 7시, 서광진 목사)
- 창세기(수, 오후 1시 40분, 정현민 목사)
- 예레미야(수, 오후 1시 40분, 김진익 목사)
- 야고브(수, 오후 1시 40분, 이종대 목사)
- 고린도후서(수, 오후 1시 40분, 김병태 목사)
- 요한계시록(수, 오후 1시 40분, 김필수 목사)
- 일어성경반(수, 오후 1시 40분, 송환장 장로)
- 요한1,2,3독, 오전 10시, 김동하 목사
- 이사야독, 오후 7시, 정해성 목사
- (2) 직분자 양육반
- 교사·여성구역장·권찰반:
- 수, 1부예배 후, 김성관 목사, 교구 목사
- 남성구역장반:
- 수, 2부예배 후, 김성관 목사, 교구 목사
- 월, 새벽기도회 후, 김희수 목사
- (3) 교사양성부
- 교육시간: 주일반 15:00~16:50
- 교과목:
- 신약개론(이종성 목사)
- 구약개론(김필수 목사)
- 신교의 이론과 실제(이승수 목사)
- 주일학교 행정(이승환 목사)
- 반목회(정현민 목사)
- 심방론(조철수 목사)
- 신학개론1, 2(김진익 목사)
- 교회론(권상현 목사)
- 성말론과 이단(단상현 목사)
- 성경과 구원 상단(김갑신 목사)
- 교회음악(조문환 목사)
- 교단 작성법(이준경 목사)
- 전도의 이론과 실제(김재철 목사)
- 예배론(박경환 목사)
- 공과법수업(정갑신 목사)
- 새신자 관리와 양육(정해성 목사)
- 교사론(이종대 목사)
- 학생발달이론(전영준 목사)
- 교회사(김동석 목사)
- 성경해석의 원리(김병태 목사)
- 교양실습(2주간)
- (4) 찬양대원양성부
- 교육시간: 매주일 15:00~16:50
- 교과목:
- 찬양대원의 자격(조문환 목사)
- 교회 일꾼의 자격(정갑신 목사)
- 초급시창(김윤경 집사)
- 합창호흡 및 발성(정창우 집사)
- 영적 예배와 찬양(박경환 목사)
- 성경에 나타난 찬양(서광진 목사)
- 중급시창(간담회 집사)
- 고급시창(이진우 집사)
- 합창 워크샵(김철문 집사)
- 은사와 봉사(차병준 목사)
- 찬양대원의 영성(김병태 목사)

99년도 첫 학습·세례 교육 문답

날짜	시간	학습자	정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정소	유아세례자	정소
2월 14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진익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자,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정현민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영준 목사)	교육관 307호		
2월 21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이승수 목사)	유아세례자 (이승수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육관 강소	문답	교육관 강소		
2월 28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자비 찬양대원, 본당)	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만남과 나눔, 진정한 소망을 위한
설 가족 예배 모범

모처럼 대하는 일가친척들을 예수님의 증만한 사람으로 만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나누며 지낼 수 있도록 준비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79장(피난처 있도니)	다같이
성경봉독	시 62:1-12	다같이
메시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인도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도처에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슬픔들, 종교적이고 인종적인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평화롭고 보장된 어린 시절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무관심과 맹수들의 공격, 사울의 불타는 질투로 인해 계속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더구나, 한 나라의 왕이 된 후에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과 자식들의 배신과 반역의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지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하 하 나님만 바라며 너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느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불평 대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침묵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평강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 사랑의 나눔 가운데,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벌리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깊은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피난처를 찾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십시오. (김성관 위임목사의 설교 중)

기도	인도자 혹은 가족 중
주기도	다같이

교정전도회

당되는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정전도회는 2월 18일(목)에는 장호원 군교도소에서, 3월 9일(화)에는 공주 교도소에서 각각 특별전도집회를 갖는다. 준비하는 모든 교정전도회 일원들과 집회를 인도할 사령관 목사,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 및 직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한다.

영아·유아·유치부 겨울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일정 조정

영아·유아·유치부 겨울성경학교 일정이 3월 1-2일에서 2월 25-26일로 앞당겨 조정되었다.

장년3부 천교의 달 행사

장년3부는 2월 천교의 달을 맞아 한 달 간, 회원배가와 친교를 주제로 행사들을 실시한다. 60세에서 70세까지 해

다음주 월요일(22일)부터 시작되는 제1회 목회자단기세미나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어찌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도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조직과 프로그램의 힘으로 교회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1회 목회자단기세미나는 오직 기도로 시작되어 기도로 마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진행되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인 목사

히스기야 왕의 생애 연장

(이사야 38:1-8)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선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된 내용입니다.

1.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 ‘이제는 끝났다’ 하고 안심하러 할 때에 또 다른 문제가 습격해 옵니다.

(1)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린 때가 언제입니까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1절)

앗수르의 침입으로 죽음의 결박을 당했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시민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즈음에, 즉 바로 그 일이 있을 후에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태산을 겨우 넘고 나자 꽃밭이 전개되면 뚝뚝했는데 물결치는 바다가 가로막고, 물결치는 바다를 건너가자 옥아 천리 파수원이 있으면 뚝뚝했는데 자기가 우거진 황무지가 앞을 가로막는 것이 세상입니다.

(2)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유언하라는 통보를 받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 와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1절)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구, 나 죽었구나’ 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유언하라는 말씀을 듣고 곧 기도하였습니다.

① 히스기야 왕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였습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2절)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끊어 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나타낸 자세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발악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돌아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를 당할 때에는 원수에게 항복하는 약자가 아니고, 원수와 타협하는 기회주의자도 아니고, 낙심하여 발악하는 비굴한 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앗수르 군

대가 협박공갈을 하고 반란을 조장하였지만 거기에 대항한바에도 대답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개인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약자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심자가 담대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야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가 만능이라는 것을 알았고 인간이 하지 못할 일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에 해 주셔야만 해결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② 히스기야 왕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였습니까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정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3절)

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생활한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들은 사람 앞에서만 경건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이 없고, 사람 앞에서만 경건한 모양을 나타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개인의 사생활과 나라를 다스리는 공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였습니다. 조금 잘못하는 칭찬을 많이 받으려고 선전하는 자가 아니고 그 그 잘못하고 속을 먹고 벌시를 당할까 보아서 허물을 숨기는 자도 아니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충성한 것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심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반쯤은 교회를 위하고 절반은 사사로움 생각을 하는 반반족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양떼를 위하여 믿음과 담을 바치면 좋겠는데 전심을 바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율지부의 선은 이웃사랑을 사랑으로 키워 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선은 이웃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지면 사람이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진실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충성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서 살았기 때문에 책임을 맡아놓고 권리만 행사하지 않았고 충성을 물 쏘듯이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므로 악한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선한 일만 하였습니다.

③ 히스기야 왕은 올무에서 기도하였습니다.

“...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3절)

히스기야 왕은 기도할 때에 보통 운 것이 아니고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때의 나이가 39세입니다. 청년인 왕이 심히 통곡한 것은 젊어서 죽는다는 것이 억울하여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히 울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습니까. 나라를 망쳐 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나라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앗수르에게 점령당할 것도 면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일을 했으면 일을 많이 한 것이냐고 업적을 뽐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까워 심히 통곡한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에 누구를 시키시더라도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 면으로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심히 통곡한 한 가지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만민을 위하여 메시아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계보에서 나시기로 작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39세에 죽으면 아들이 없으니 다윗의 족보가 끊어집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나실 족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것 때문에 통곡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 메시아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나에게 아들이 없으면 다윗의 족보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보통 육신의 욕심으로 젊어서 죽는 것이 억울하면 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만민의 구주가 나실 계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심히 울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인격은 이렇게 훌륭합니다.

2.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생애 연장으로 응답되었습니다

“...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면에 성모연을 더하고 나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내리라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5-6절)

이사야 선지자는 “임금님, 유언하시시오”라는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

갔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사야야,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에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여라. 또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기로 허락하신다고 하여라. 또한 앗수르의 침략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보호하신다고 하여라.”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임금님,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선언하고 돌아가는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사야야,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고 해라.”

아버지가 아들 딸의 소원을 들으신 다음에 허락해 주시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결정하신다면 무슨 문제일지 해결이 안되었겠습니까.

충원교회 성도의 기도는 사람만 듣는 기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 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이 사람이 보는 데에만 나타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너는 선하다” 칭찬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 주실 만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실 만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애 연장을 받고 3년만에 아들을 낳아 예브 스리드에게서 나실 족보가 이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생각할수록 그는 고마운 왕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다른 나라가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벨론과 앗수르와 메디아라는 큰 나라가 왕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데도 히스기야 왕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결노절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서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데에 실례를 하겠습니까. 왜 성경을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돌보아 주시면 원수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당할 만하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해 주실 만하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선하다고 믿음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



김성목 목사

불 뿜는 화염 (다니엘 3:26-29)

“누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야구 가까이 가서 불려 가로되
지금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네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흐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서 받는 도전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된 후,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네흐를 바벨론 도의 관리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불 때 관리가 된 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서 생명을 내어 놓는 신앙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들의 신앙의 승리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순종은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주어진 사도들이요, 또한 이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온 땅에 선포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부갓네살의 절대권력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었던 시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부갓네살은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황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3:1). 사실, 누부갓네살은 세계 최고의 권력과 권세를 한 손에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의 명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황금 신상에 남나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다 철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독들과 장관들 모든 관료들과 문물, 회계원들, 관사들, 마술사들과 바벨론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3:2). 왕은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이 예식에 참석하는 것을 심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왕은 주악에 맞추어 자갈에서 절할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이글거리는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지우리라”(3:6).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시험

왕은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는 중요한 인물들을 초대했고, 왕국의 의자들과 특별히 황금으로 된 신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거나 풀무불에 타서 죽거나 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가혹한 병명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제국 바벨론의 왕궁에서 모든 일들을 관장하게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할 것을 인설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토록 거대한 왕의 명령에 불복할 수 있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네흐는 바벨론 사람들

은 잘 알지도 못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시험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아니오’ 할 수 있는 신앙

이제, 다른 관점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볼 때, 현재 그들의 태도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외국으로 사로잡혀 가서, 아무도 그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던 포로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중, 바벨론의 녹을 먹는 관리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고, 또한 바벨론 앞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그러나 이들은 감히 바벨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황금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3:12).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졌 있는 모든 환경들은 그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를 것을 단언한 것입니다. 이들은 풀무불을 두려워하는 대신 신앙을 위해 불붙는 화염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봅시다. 우리는 신변에 조그마한 위협과 손해만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상황에 따라 타협을 잘 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주 관대해집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강하신 주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네흐는 누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올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풀무불보다 강한 성령의 불

세 친구의 이야기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마쳐집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분명 세 사람이었는데 불 속에 있는 사람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부갓네살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놀란 나머지 세 친구를 향해서 풀무불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장 높은 신이신 하나님의 종들”(26절)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교만한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친구와 함께하신 성령의 불은 풀무의 불보다 더 뜨겁고 강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다시 온전히 살아났습니다.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불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 나는 기쁨과 평안이 용광로의 불처럼 끓어오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화염 표지는 엄청난입니다. 스스로를 우상화하여 하나님의 대적하던 절대권력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의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흐의 하나님께 실한히 말하거든 그 몸을 찢고 그 집으로 거둬들여 살을치라 이는 인간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29절)고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승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흥해를 갈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허락해 줄 것이고,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거둔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싸움을 끝내는 일은 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섭게 타오르는 성령의 화염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떠한 시험보다 강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

믿음이 바로 열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흥해를 갈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거둔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끝내는 일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섭게 타오르는 성령의 화염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떠한 시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는 비교될 수 없는 초자연적 것들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가짜 신들의 허구를 드러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메아리칩니다. “그러나 무엇이었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던 것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 3:7-9). 누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에게 “너희 신이냐의 손으로부터 너희들을 구해 줄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우상에게 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

내리니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새우신 종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3:17-18). 이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이 구원하시든지 죽게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태에 대한 평가가 보지되지 못했을 때, 자녀들이 절하면서 보호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완전한 헌신에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사람이 동산에 었던 기도하는 예수님을 생각해봅시다. “내 아버지가 만일 할한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예수님은 끝내 신실하게 참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풀무불과 같은 시험을 종종 당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시험이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

선교

국내외국인선교부

복음을 심자!

설 연휴 동안

겨울수련회 행사 열기로

선교위원회의 국내외국인선교부(외선부)는 오늘부터 16일까지 교회와 총회기도원에서 제1회 겨울수련회를 갖는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외국인 120여명과 봉사자 30여명 등 총 150여명이 참가할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복음을 심자! (롬 10:10)'이며, 선교위원회의 지도인 이슬수 목사자 수련회 주장자이다.

수련회 2박 3일간의 프로그램은 말씀 선포와 성경공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성극과 찬양 그리고 친교시간으로 구성됐다. 특별히 수련회 첫날은 주일이고 참가자 전원이 수련회 주제 찬송(324장)을 연습해 주일 찬양에서 특출을 하기로 했다. 외선부는 처음 시행되는 이번 겨울수련회를 계기로 외국인 형제들의 믿음을 한층 강화시키고, 나라면 일꾼을 뽑아 특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겨울수련회를 설 연휴 기간 동안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형제들이 이 기간동안 외롭고 쓸쓸하게 지나기 때문이다. 모든 공장이 문을 닫으므로 특별히 소일거리가 없는 이들이 술 마시고 노름하고 방탕하게 지내며 좋은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형제들의 영성을 강화하고, 믿지 않는 다른 외국인 형제를 전도하는 좋은 계기로 삼고자 여러 가지 예로 사함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동안 겨울수련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만나자에서 온 편지

2국에 계신 가족과 성도들께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 만나자에서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진행되어진 것을 바라보며 참으로 감사드리며 또 부족한 저희 가족을 위해 끊임 없이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열정만 앞세워 저희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했으니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만남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맡아주고 주께 돌아오니 다는 진리를 발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로 쓰기를 기다리며 남다른 예수님 안에 거할 뿐입니다. 지금도 물질적, 형식 없이 있는 저희

만물이 주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도우로 쓰시기를 기다리며
주님 안에 거할 뿐입니다.

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을 느끼며 물질 또한 어려움 없도록 저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 공급받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께 인도를 체험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정비공정인 직원들과 저희 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매일 아침마다 공장에서 찬양과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제자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으로 일하는 현지인이 저희 공장에서 살게 되어 현지어로 매일 아침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직원 중에 '영을! 주일만 전도제미야'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인 중에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희집에 와서 신앙하는 기도 많이 나옵니다. 현지 언어는 지금 집사람이 저보다 많이 앞서 있고 그 주 전부터는 현지인이 드리는 예배도 참석합니다.

한달 후부터 저의 사는 집이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1년 전 선물을 받아 내었다. 현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저희 살 곳을 공장으로 옮길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고민도 많이 하고 머리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걱정을 적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고 머리써 봤자 해결되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별한 어려움 없이 다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 가족이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를 매일 지고 예수님을 갈 따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나자에서 김영관, 윤필수 올림

스리랑카를 향한 기대

오 경희(청년1부 교사)

싱가포르, 콜롬보(스리랑카 수도)를 경유한 우리 양육2팀이 마하트라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30분이었다. 그 밤중에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델리니의 온 가족이 일어나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에게 자선들이 자던 방을 내 주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전에 델리니 어머니께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오침을 하였다. 그리고보니 작년에 있던 불상과 탕화는 보이지 않았다.

첫날부터 성경공부 하기에는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과 세례를 받고 온 델리니는 자꾸 이 일 저 일을 핑계 대며 시간을 보냈다. 어찌되었든 나와 추진회 자매는 양육이라는 사명을 받고 왔기에 그녀에게 우리가 온 이유들을 납득시키고, 차츰차츰 벽을 허물아가며 그들과 대화해 나갔다. 사단의 역사는 그녀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게 했다. 동생아들이 그 열에서 장난을 치고 시끄럽게 하여 집중력을 흐트러놓았다. 그때마다 나와 친회 자매는 단호하게 얘기했고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풀어나갈 때마다 델리니는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고백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본연도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모두가 불교 신자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들을 듣지 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델리니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하며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음을 얘기하여 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델리니에게는 남다른 사랑이 갔다.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 그것이 정말 그러하냐 하나하나 질문하고 가는 그녀의 태도를 보며, 우리는 그녀에 있어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 사실 그녀는 물질적으로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고, 내적으로도 영적인 것들을 겪고 있다. 그녀가 평탄하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그녀 스스로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 내적 외적 갈등과 대립 상태에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일은 5년의 성경공부를 통하여 그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우리가 연두부 물레에 있는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델리니와 버스를 타면서 갈 때 델리니는 교회를 세우자는 말을 했다. 우리는 속으로 기뻐했다. 우리의 이번 단기 선교의 기도 제목 중의 하나인 그 제목이 델리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교회 설립 가능성이 보였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스리랑카의 백성들을 사랑하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다음번 단기선교에 한층 성숙해 있을 델리니와 그 일행인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 일을 위해 나와 온 몸으로 기도할 것을 다짐해 본다.

예배

자·리·잡·아·가·는·5·부·예·배

이제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나서서 예배로



5부예배를 드린 지 약 1년 6개월이 된 지금, 5부예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 김성관 목사님, 젊은 두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예수님이 친척입니다', 핸드벨콤파이 등등 젊은 이들이 5부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깊게 받은 인상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5부예배를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실까?

1997년 8월 24일 5부예배를 처음 드린 날 우리 젊은이들은 어떠한 모습들로 예배를 드렸는지 물어보자.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의 모든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라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갑자기 모든 시간들이 바뀌어 그 시간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김성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첫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해 고등부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한 축의 찬양대석에서 찬양을 했다고 한 축은 대학부찬양대와 청년1부의 찬양대가 각자 찬양을 했었다.



△ 고등부찬양대와 오케스트라

1999년 2월 14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생각들은 어떠할까? 아직도 주일 활동 시간이 길어진 것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지만 대체로 5부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5부예배를 사모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2월부터 젊은이들이 아쉬워하는 일이 생겼다. 젊은이들과 함께하셨던 김성관 목사님이 건강 문제로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의 목사님과 격주로 설교를 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목사님들 둘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고등부, 대학부, 청년

1부 목사님들과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음들로 찬양을 하는 기존의 고등부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매우 일 성찬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대학부와 청년1부의 젊은이들이 만난 벨렐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갈수록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또



△ 벨렐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한 1월부터는 대학부 임원들이 안배를 맡았다. 이들은 2시 20분부터 오기기도를 하고 각자 안내할 곳을 찾아 자연스



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안내를 한다. 예배에 대한 감각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젊은이들 누구든지 함께할 것임이 있다.

예배는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5부예배가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는 말씀들로 가득차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로만 그치지 말고 젊은이들이 스스로 나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가 서로 이해와 격려로 더리부 타부서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박주영 기자)



△ 핸드벨콤파이

어느 추운 토요일

최 보 라 (영아예배부, 고등부)

지난 1월 16일 우리보다 조금 이른 천사들을 찾았다. 처음 천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매우 조용했다. 조금 열린 문 사이로 그곳에

서 사는 천사들의 모습이 하나둘씩 보였다. 우리를 보고 방긋 웃는 그 모습, 그런데도 발을 들여놓기가 조금 망설여졌다. 작은 그들의 모습이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우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으로 온 것이기에 주춤했지만 용기를 내어 천사들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큰 눈에 감마를 아가 내게와 안기며 웃음을 지었다. 그때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던 망설임들은 모두 사라져 갔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을 내가 그들에게 먼저 안긴 것이다. 그래서야 비로소 나는 뜬 눈과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도 같이 부르고 뛰어들고 했다.

그들은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았다. 곁에 보이는 외면적인 모습은 분명 우리들보다 덜 가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맑은 미소와 착한 마음씨, 누구나 사랑할 줄 아는 용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 그들은 정말 천사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 즐거운 시간일수록 더 빨리 가는 듯 우리와 떠나야 할 시간도 어느덧 다가왔다. 내가 일어서려고 하자 나와 친했던 20살 한 어린이는 내게 안기며 "가자" "가?" "응, 지금 가야 해."

"언니, 언니 또 울거지?" "응, 또 울게." "언니 언니 또 울거지?" "아니 언니 또 울거지?" "가자" "언니 빨리 가" 부르며 몇 번이고 물었다. 나는 눈물이 난 것 같아서 얼른 자리를 일어났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몇 번이고 약속했다. 꼭 다시 이 천사들을 찾게 되겠다고.



곁에 보이는 외면적인 모습은 분명 덜 가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천사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

나는 눈물이 난 것 같아서 얼른 자리를 일어났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몇 번이고 약속했다. 꼭 다시 이 천사들을 찾게 되겠다고.

한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내 친구가 당시 하나님을 믿었다면 친구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을지도

윤 언 선 (고등부)

십삼년이라는 내 삶 속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가슴아픈 일이 있다. 내가 6학년때 나의 돌도 없는 친구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을 멀리 떠나가신 일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단짝이 된 그 친구의 아버지는 당시 위암이었기 때문에 입원하시자마자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을 너무 많이 잘랐기 때문에 오래는 살 수 없으시다고 친구가 말을 해 주었다. 그래서 그때 나는 마음으로 진심되게 기도드렸다. "이 불쌍한 어떤 양을 주께서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다.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드렸다. 그리고 학교수업이 끝나자마자 친구 어머니가 하고 계신은 음식점으로 달려가 일손을 도와드렸다. 친구의 큰 형은 군대에 가게 되었고 작은 형은 고3이었기 때문에 친구 아버지의 곁에 있어 줄 사람은 내 친구밖에 없었다. 나는 친구 어머니의 일손을 도우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 이제부터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아버씨의 병도 다 깨끗이 나을 거예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하나님이? 글썽난 종교에는 관심이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계속 말을 하였지만 언제나 아주머니의 말은 "관심없다"라는 단 한마디 말뿐이었다.

그 다음날에 수업이 끝나자 나는 친구와 함께 그의 집에 갔다. 친구는 아버지의 심부름과 잔치 상을 차렸다. 나도 같이 도와 주었다. 모든 잔치는 죽음으로 해드려라고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가끔씩 죽을 누렇게 만들기도 했는데, 그때 그때 친구 아버지가서는 "구수하게 잘 만들었다" 하시면서 맛있게 드셨다. 그리고 죽을 다 드시고 난 후에는 "우리 아들 때문에라도 오래 살아야지" 하시면서 친구를 위로해 주셨다. 나는 그때 눈물이 핑 돌았다. 예수님만 영접했다면 건강할텐데 ... 난 그때 친구를 불러서 성경을 한 구절 읽어주었다. "아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 친구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렇게 시간이 6개월 정도가 흘렀을까? 그래서야 친구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지금은 집 근처 가까운 교회에 주일마다 나간다.

남원 거울성경학교 사역을 다녀와서

내려놓기와 사랑

황 지 훈 (대학부2학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윤유하고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나의 생활에서, 그 이전에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로움에서, 두려움에서 난 안으시며, '괜찮아 ...' 나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베드로를 회개시키셨던 나에게 오신 예수님. 우연찮게 누나를 따라 나섰던 한 기도집회에서 나는 세뽕까지도 영영 올랐던 감격스러운 날 바로 나의 일이었다. "남원 사역에 한 번 가보지 않을까? 짧지 않은 준비기간이었지만 하나일(통신모임)에서 선배형과 만나 같이 통신사에서 기도하며 사역을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남원 사역은 대학부 '시심나(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관으로 남원의 시골교회의 거울성경교회를 하러 가는 것이었다. 일정 중에서 화-목요일이 거울성경학교였다. 아이들을 만나고 기도할 일이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결코 쉽지 않았다. 하나일의 뜻이었던지 분반공부를 후배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유년부(초등 1-3학년)에게 어려우니 핵심만 짚어 주고 쉽게 넘어가자는 나의 의견과 달리 정식으로 성경까지 읽히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성경 말씀을 전하자고 했다. 아이들이 지겨워하고 이탈하고 버지

는 것을 통제하며 힘들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그 말씀을 알아들으며 끝내 대답하고 전하는 아이들을 볼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그래서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아이들은 더 친해지고 활발해졌다. 성경학교 시간이 끝나고 교회 차를 기다리는 동안 달려붙어 장난치는 아이들, 극 발표 시간에 다같이 준비한 아이들의 대사를 외어 내는 모습. 주축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 각자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며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들.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같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각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기억하기도, 모두 이해해 주고 같이 해 주지도 못했던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유년부(초등)부터 중학생 아이들까지 눈이 빨개지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 우리들도 같이 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너무나도 없었는데도 많은 사랑을 오히려 그들에게서 받고 있었다.

사역한다고 했던 남원. 그러나 나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내 내미시고 다가오신 회복의 손길이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충천소년원을 다녀오며 느낀 것들

오 상 균 (대학부 3학년)

4박5일 동안 충천소년원을 갔다 왔습니다. 왜 하나일에서 가라 명하셨는지 알았습니다.

1.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을 기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두려운 마음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의 내면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조차 기도할 때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2. 저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너무 지극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역에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교회에 앉아 회의를 하고 계획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이리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체험을 느끼며 성경말씀에서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함을 이번 사역을 통해 너무 뼈저리게 회개했으니 나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3. 찬양의 능력이 다시 한번 높았습니다. 아마도 4박5일 동안 300곡의 찬송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찬양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부를수록 찬양에 내 마음이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4. 지금까지 너무 편히 신앙생활을 해 오려

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지금까지 사역을 정하기 전 기도해 보고 정해 왔었습니다. '이 사역을 가면 배부러져 먹을 수 있다. 이 사역에 가면 고생만 죽도록 한다. 이 사역을 특별한 인간이 아니면 못 간다. 이곳에 가면 기도회만 5시간 한다' 등등의 소문에 흔들리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정할 때 너무 쉽게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다가가 더 사역하기 편할까를 생각을 해보다 갈 때가 종종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느린 것 같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엔 분명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일에서는 결코 우리가 있지 않아도 되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데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와서 하나님께 다짐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기 마시고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입니다. 나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설은 한자로 신일(神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는 '근신하여 경계(警備)를 삼간다'는 뜻이다. 묵은 일년을 보내고 새로운 일년을 맞이하면서 일년을 새롭게 보내고자 하는 뜻으로 자내는 명절인 것이다.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와 머리를 고향으로 돌려놓고 꼬리에 꼬리를 문 차들로 차려진 주차장이 된 도로 위에서 하염없는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서도 마을 속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합당한 설 보내기를 특성하면서 이 기쁨의 진정한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설에는 우선 **만남**이 있다. 진정한 축제의 기쁨은 만남에서 시작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일년 내내 주일을 교회에서 보내기 때문에 평소에 일가친척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설 연휴기간에는 일가친척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의 진실한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명절기간 중 우리들의 만남은 자칫 피상적으로 흐르기 쉽다. 진정한 만남은 육신만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히 만나는 만남이어야 한다. 따라서 텔레전과 오락에 맡겨버리는 습관을 버리고, 서로 반목했던 마음을 풀고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의 정성으로 준비한 작은 선물과 진실한 마음이 담긴 편지도 준비할 수 있



면 풍요리라.

설에는 또한 **나눔**이 있다. 오랜만에 대가족이 모이고 보면, 그 안에는 넉넉한 집도 있지만 궁핍한 집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소 이기적이라는 평을 듣는 것을 우리는 가슴아프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잘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고집을 앞세워 오해하지 말고 기꺼이 받는 마음도 큰 사랑의 용기가 될 것이다.

설에는 **감사**가 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진정한 은총들을 나누고 우리의 모든 앞날이 불확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감사로 가득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감사 속에서 온 가족이 누릴 진정한 기쁨, 죄의식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는 기쁨이 솟아올라게 될 것이다.

급년 구정 설에는 이러한 만남과 나눔과 감사로 인해 '주님 안의 행복'이 한층 깊어지는 시간이 가득하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번 설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실 것이다. (편집실)

권·사·회

부름받은 권사회

김 용 순(권사, 권사회장)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7). 이 말씀을 1999년 권사회 주재 성도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악을 누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할 것을 명합니다. 이 길이 최후 753명 원로, 은파, 시무권사들이 다함께 살아가야 하는 길임을 다 접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듯

충만한 은혜와 성숙한 믿음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급년에 제20대의 권사회장으로 부촉한 저를 세워 주시고(19년 전 권사 직분을 받고 한 달동안이나 울며 멀리 떠나 이제 같은데) 예년과 같이 본회 일원 9명과 4개 지회의 모든 임원이 주성되어 99년을 새롭게 출발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권사들은 질서란 날로 후배할지라도 힘찬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할 같은 충만한 은혜와 성숙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현인 기도를 힘에 다하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친밀한 사귀기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시작했던 24시간 연속기도회가 8년동안도 헌신적인 믿음으로 지켜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힘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함으로써 민족이 살며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부름받은 권사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계속 뜻을 모아 남은 생애를 충성하기를 소원하면서, 새해를 아끼고 주어진 기회를 아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려운 구석구석을 찾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힘을 모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거울성경학교를 마치고

전도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다짐

조 군 실(집사, 유년부 교사)

“정말 재미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였어요!”
키 작은 입을 모아 외치는 어린이들이 바라보면서 거울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고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주제로 25일-26일 이틀 동안 열린 유년부 거울성경학교는 예년에 비해 한 달이나 앞당겨져서 준비 기간도 짧았고, 새 생생 날 새 친구들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소 서먹한 가운데 실시되었지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천국 잔치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부장 장로님의 지휘하에 준비기도회로 무장한 한 선생님들은 짧은 시간에 워크북을 제작하러 특별활동 준비하러, 찬양과 율동을 연습하러 비지땀을 흘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날 예배 색깔의 풍선들로 장식된 예배실로 들어서는 어린이들은 기대와 호기심에 어린 눈망울을 굴리며 찬양과 율동으로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시작했지요. 예배 시간 김영기 전도사님의 생동감 넘치는 말씀을 통하여 바다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빛있는 예수님을 마음 속에 모시고 행동으로 주님을 선포하기로 다짐하였고 권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할 때 육도 밖에 뿌려지고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지요. 인형극과 선교영화 상영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쉬워하던 친구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충성을 다 하는 천국 일꾼이 되었어요. 맛있는 점심 식사 후에는 오정희 선생님의 안무와 사회로 다스림의 무용수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 열정을 다해 춤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에어로빅과 어와나게임을 통하여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를 배우며 넓은 분당 댕 물들 힙합 함성으로 가득 채웠던 어린이들은 영성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아쉬운 발견들을 들었습니다. 다음 여름성경학교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길 기도하면서...

평민의 편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을래요!

이희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광미예요.

선생님이 가시니 너무 섭섭해요. 안 가시면 안돼나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가시니 ...

전 지난 밤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세요? 선생님께서 가시더라도 다들 겨울성경학교때에는 꼭 오시리라 믿어요. 선생님처럼 미인이신 선생님이 가시니 너무 섭섭해요.

전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을 거예요. 선생님께서도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으실 거요?

선생님! 저 잊지 마세요. 저도 언제나 선생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편지 주실 거라 믿어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잊지 않을게요.

여름성경학교 때도 만나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 꼭 다시 오시라고 기도할게요.

1월 28일

제천에서 광미 올림



지난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교구는 겨울철 농어촌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이때 방영했던 충북 제천의 금성교회 성경학교에 참석하러 한 어린이가 쓴 편지입니다.

지체소식

지체소식

영어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겨울 성경공부를 우리 회원들이 하러 하심에 2월 25일, 26일 아기의 엄마, 아빠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기 말씀들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또한 "구약에 나타난 가정교육"이란 제목으로 학부도 특강을 민경애 집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학교 주제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많은 가정이 참석하셔서 은혜받으시길 원하며 교회학교의 첫번째 기관인 영어부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푸른 잔디 꽃밭은 누가 내셨나,

보슬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셨지!

유아부 어린이들은 금년 첫주일부터 창조에 대해 배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처음 만드셨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일찍한 질서 속에 움직이는 것도 배웠다. 겨울 뒤에 어둠이었기 봄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도록 한다. (임미숙 통신원)

유년부

기쁨으로 봉사하는 어린 헌금위원

매주일 오전 10시 10분, 유년부 예배 시간 20분전, 합창악을 끝낸 유년부 헌금위원 15명이 예배실 푸른잔디 헌금가운을 갈아입고 매번씩 내 댕구 끈 의자에 모여 앉는다. 이어 임기채 장로님께서 이들이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며 담담교인인 합창자 선생님께서 각자의 헌금의역을 지정해 주신다. 스디이 기다리던 헌금시간. 동전 한 닢이라도 떨어뜨릴까 살수하지 않으려든 조심성과 장난끼가 느껴지지 않는 진지한 표정. 나도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이나 쓰임받았다는 자랑스러움이 기쁨으로 얼굴에 드러난다. 이들이 믿음으로 홀로 하게 자라나 하나님의 귀한 한국인공민될 것을 기대한다. (윤숙희 통신원)

중등1부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이 있는 곳

선생님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대성업을 하였다. 친구들끼리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중등1부에서는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이 있고 무엇보다 영원한 강도사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은 너무나 쉽고 재미있다. 선생님들이 사랑과 기도로 친구들을 섬길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 많았으며 감사과 건강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중등1부로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영희 통신원)

중등2부

심방모도 다져지는 우리들의 사랑

중등2부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가정심방을 실시하였다. 그에 힘입어 교사들도 반 학생들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학부모도 면담하고 서로의 기도제목들을 나누었다. 그리고 2월 22일부터 2박3일 기도회에서 실시하는 동계주련회의 참석자를 늘리기 위한 특급 홍보 전지편에 돌입하여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초대의 글, 만화, 콩트) 홍보하였다. 또 모든 프

로그램은 각 과별로 실시함으로써 전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심숙덕 통신원)

중등3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꼭 오세요!

2월 22일~24일 춘천기도원에서 겨울수련회가 열렸다. 이번 수련회에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친구, 가족 문제, 자아상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겪게 되는 선택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는 주제를 성경공부가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공동체훈련, 부흥회, 반별전교의 시간, 주제특강 등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다. 3월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시기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이 직접 율행하시는 배에 함께 한 3월 친구들을 기다린다. (송미경 통신원)

고등부

남들은 4D업종이지만...

고등부 선생님은 오늘도 봉사하러는 한 성도자 교사를 찾았다. 그 성도는 고등부 주부의 정기 모임인 안내-학생기도회, 학생부부서 모임, 교사 성경공부, 기도회, 교사회 및 과별모임, 반반공부, 주제특강, 보고 및 물로소 모임, 5부제(1500원)-침과 노다 나서 "4D 업종이..." 하며 황금교 교사실을 빠져나갔다. 그러자 지금도 고등부 108명의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운 섬김기 화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4D업종'의 고등부를 사랑하고 아비가 자식을 돌볼같이 학생을 돌보고 있다. 친화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음을 아쉬워하며 ... (이영희 통신원)

장년3부

같은 회령 축축이 적실 말씀의 전당

2월은 회령회와 전교의 달로 정하고 교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60대 성도들이 307호로 달려나오기를 기대하며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재정비하고 장기결석자료를 심방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끈이 더욱 굳게 매여져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60대 성도님들이여, 장년3부로 나오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낙히며 천성을 향해 전진할 길이 탁 트일 것입니다. (송미숙 통신원)

소망부

하늘나라 찬양제의 모형

철이 날고인 어른들의 찬양대원은 음성적으로도 물론인 창찬전회의 음성적 부분 안간장 정도의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양을 부르십니다. 철, 팔십이 넘은 이 연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얀 가운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드리시는 모습이야말로 소망부 집회에만 볼 수 있는 경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디션을 거쳐서 음악과 영성도 있어야 하고 믿음의 인품도 있어야 자격증이 주어진다. 순성욱 집사의 열렬한 지휘와 최선진 소망부 이영숙 집사의 반주가 이루어진 다함

부 찬양대는 대원들 모두 건강이 주어지는 한 사명 감당할 겁니다. (이영숙 통신원)

신혼가정부

결혼준비반을 아시나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신혼가정부에서는 결혼준비반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을 세우고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만족과 믿음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정의 성개도를 하나님의 만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결혼준비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혼인예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상: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부부 교육일시 및 장소: 매주일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교육관 202호 교육기간: 8주(결혼 후 신혼가정부에서 계속 교육 가능)

교육내용: 성경적 결혼관 확립, 가정정권훈련, 비전교육, 사랑훈련, 모범적인 생활훈련

영어교육부

기도의 정성 모아 선교사 후원키로

영미교부에서는 7월 주일 예배 후 헌납순 선교사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반 선교사는 중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부산에서 성장하여 회심한 한 도중 사자로 발령받았으나 92년 부타 본교로 영미교부에서 인원을 맺게 되었다. 94년 본교를 떠나 미국 갈보리채를 맡아볼랄리지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귀국하여 현재 OM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유럽에서의 선교 훈련 후 카자흐스탄에서의 사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영미교육부 자체 성경공부반에서는 반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 후 후원키로 했다. (현정희 통신원)

군전도회

참빛교회 신도 건축 후원, 헌당식



군전도회에서는 2월 4일(목) 오후 2시 육군 지도청내에 세워진 참빛교회와 헌당식에 참석했다. 참빛교회는 타계 헌금과 중부지역 군복음화 후원회의 후원과 우리 교회 군전도회의 후원으로 봉헌예식을 가졌다. 이예식에 지휘관 및 장병, 그리고 300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전헌종 목사가 참석하여 헌당기도 순서를 담당하기도 했다. 앞으로 참빛교회 인교회를 통해 군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한다.

1교구

지표하시는 하나님

각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병증에 있음을 볼 때, 이 땅의 나그네임을 같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근심과 안타까움이 컸다. 영과 육이 강건하

여 열심히 살다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편안하게 떠나 갈 수 있기를 누구나 기도해 보았으리라 짐작해 본다. 무병증인 형제 자매들 믿음의 승리를 간구합니다. 여로와 라라! (임동경 통신원)

4교구

천국에서 만날 소중한 얼굴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첫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갑갑한 새벽에 교회 뜰에서 서두리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활짝 웃음들을 지었다. 본당 지정된 좌석에는 머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특정한 남장님들, 두 시력을 써야 하는 집사님들, 이미 자리가 파악되었다. 천국 가서도 만날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기에 주님의 사랑이 소망들의 심령에 사뭇하게 감겨움을 느낀다면 조종하 두손을 모아 기도를 드린다.

9교구

위로와 사랑 넘치는 천국은 길

우리 교구 상호회에서는 장례를 당한 가정에 장례절차를 도와드리며 말인에 배대 교구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시는 분과 이 땅에서의 이별의 슬픔으로 가슴 아픈 유족들을 위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의 찬송을 불러 드린다. 그동안 교구 찬양대의 가운 입는 것이 어려웠던 거론되었는데 이번에는 집사님의 후원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인 교구 식구들이 더욱 많이 참석하여 정성껏 준비된 가운을 입고 위로와 사랑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정영관 통신원)

12교구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위로와 권면

새해와 더불어 1월 한 달간 기도사역을 통해 영적으로 무장하고 내려오신 목사의 사역이 지역소망과 지역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지역모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권면과 위로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기대하며 주님이 주신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리라 믿는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푸디아리교회에서 전국일군 양성이라는 교회 목적에 따라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던 불신 가정의 장수자 학생이 키트에 입원해서 가족이 함께 교구 모임에 나와 감사의 인사를 했다. 계속해서 온가족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섬기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요망된다. (이영숙 통신원)

15교구

교구식구들의 사랑장 섬방 지도

직장복음화는 가정복음화에서 한단계 더 영역이 넓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되고 있다. 직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타래는 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자신의 직장이 복음화되어 사의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러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다. 그동안 교회의 목적이 가정은 우선적으로 돌보는 일이고, 직장에 관련한은 치의학권 속에는 아니었다. 반감게도 15교구에서는 사업장 섬방이 시작되었다. 원하는 곳을 찾아가는 팔각이 있었다. 사업장 섬방을 시작으로 직장 복음화가 적극적으로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도 이중적인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착될 줄을 본다. (현숙희 통신원)

교회 소식 / 목·장집결

● 알림

1. 98년도 메시아 연주 CD 발간 / 지난해 성탄절에 있었던 제3회 성탄축하연합창(메시아 연주)이 CD로 제작되었습니다.
구입처: 사무국, 찬양위원회 신(500명)에 한해 1장당 3천원(세 포함) 중 찬양으로 하 나남게 양품들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발: 2월 22일(월) 19:30, 나사렛을 - 지도: 안종남 집사
· 문의: 장규구 찬양감독
2. 메시아(여중생단 찬단(단원모집)) / 메시아(전도원(50대 여성) 중 찬양으로 하 나남게 양품들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발: 2월 22일(월) 19:30, 나사렛을 - 지도: 안종남 집사
· 문의: 장규구 찬양감독
3. 메시아(부수교집) 2월 28일-6월 20일 매주 월 15:00-16:30에 교육관 109호에서 열립니다. · 문의: 메시아교사
4. 사립부 사립중학교 교사 모집 / 배우인 사립부 학생들의 동화교를 도와줄 교사(1종만 허자)자를 모집합니다. · 문의: 사립부 교사실
· 봉사시간: 매주 월 8:00-10:30, 12:30-14:30
5. 춘천복지관 직원모집 / 특수교사를 모집합니다.
· 자격: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예정자 · 문의: 564-4885
6. 주간출현 광고 및 지체물소식 신청 접수 안내 / 월간 연후 관계로 오늘날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 모임

1. 장로 회오세백기도회 / 16일(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월오세백기도회 / 15일(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3. 안수후회기도회 / 오늘 15:00, 안수리틀
4. 전도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00, 안수리틀 405호
5. 봉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사무국 회의실
6. 학원전도회 월례회 / 오늘 12:20, 본당 지하 110호(대상: 유, 초, 중, 고교 교사)

● 남산전도회

1. 바 줄 7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2. 바 줄 8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3. 바 줄 9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4. 바 줄 10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5. 바 줄 11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6. 바 줄 12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7. 바 줄 13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8. 바 줄 14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9. 바 줄 15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10. 바 줄 16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11. 바 줄 17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12. 바 줄 18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13. 바 줄 19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14. 바 줄 20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15. 한 나 3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16. 한 나 4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17. 한 나 5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18. 한 나 6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19. 한 나 7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0. 한 나 8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1. 한 나 9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2. 한 나 10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3. 한 나 11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4. 한 나 12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5. 한 나 13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6. 한 나 14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7. 한 나 15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8. 한 나 16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9. 한 나 17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0. 한 나 18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1. 한 나 19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2. 한 나 20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3. 한 나 21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4. 한 나 22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5. 한 나 23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6. 한 나 24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7. 한 나 25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8. 한 나 26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9. 한 나 27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40. 한 나 28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41. 한 나 29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42. 한 나 30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43. 한 나 31 / 21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결 혼

1. 담임목(장)관영 씨 아들과 김수정 양(김영준 성도, 교구장 권사의 딸, 20/21) / 20일(토) 17:30 퇴교로 새교로 4층 배금당

● 별 세

1. 이점녀 성도(안숙신 집사 모친, 6교구 3천구) / 5일 별세, 7일 장례
2. 김범이 성도(안영호 집사 모친, 장곡자 집사, 박순례 집사 시모, 8교구 회양구) / 8일 별세, 10일 장례

장학금 신청 안내

- 장학금 신청: 오늘까지 교육국
- 논문 및 면접: 2월 20일(토) 오전 9시 30분 교육관 507호

사진 찍으세요

- 99년도 신입 남녀 서리집사들께서는 제직사진첩에 실릴 사진을 올 때까지 모두 찍으시기 바랍니다.
- 찍는 곳: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내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15	이재호	1	청년1부	이진규(7)	228	김수정	15	루디아		241	정지호	19	예배다부	홍지순(10)
216	이재호	1	청년1부	이진규(7)	229	정지호	15	대학부		242	박진영	19	예배다부	홍지순(10)
217	장동수	2	바 줄	김규석(6)	230	김해경	15	청년2부		243	정미선	2	청년2부	
218	김해경	2	청년2부	김규석(6)	231	이근재	15	청년2부		244	김옥진	19	고등부	
219	송두환	3	베드로		232	김양기	15	바 줄	송기홍(10)	245	이준수	19	대학부	
220	장유정	3	루디아		233	정영실	15	예스다	송기홍(10)	246	이정애	15	루디아	이영숙(2)
221	김달수	5	바 줄	이진규(7)	234	이예림	17	청년1부	김종규(17)	247	김시미	19	청년1부	윤선영(19)
222	주기석	6	대학부		235	박대수	17	대학부		248	조혜정	19	대학부	윤선영(19)
223	박영호	8	바 줄	박영호(8)	236	김정재	19	대학부	김성욱(14)	249	한은주	19	청년1부	
224	유미선	12	루디아	이정숙(2)	237	신민아	19	청년1부		250	천원정	19	대학부	
225	고희여	12	중등부	이정숙(2)	238	이 현	19	청년1부	김대수(12)	251	황영숙	3	예스다	
226	한준택	12	바 줄	한현숙(14)	239	김대영	19	청년1부	김준(9)	252	김도영	19	청년2부	
227	송기호	12	한 나	한현숙(14)	240	유대목	19	예배다부	이강진(15)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장집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

이 중 국(경로, 17교구))

가히 경제동물(7)이라 일컬어질 만한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적 여유 확보하고 누리'인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진 재산을 증식시키고려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투자대상을 찾아다니면서, 고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투자해야 할 가장 확실한 은행이 '하늘은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 6:20).

주님께서는 이와 더불어 우리의 정신과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원리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오히려 깨어 있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같이하게 하라'(잠 19:17).

이 비범스럽고 영광된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이 묵묵히, 순순히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이들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관심을 제조정해야 하고, 내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실제 노숙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잠시 섬길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많은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영적 차원으로 어떻게 승화되어야 하겠는가를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기 위해 모였다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진정 감사사를 드립니다.

2월 21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2. 3부예배
투디아여중생단
(찬양감독)

- 내 진정 사모하는
-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 주 예수를 만나서
- 나의 도움받고자

◆ 4부예배
오케스트라 앙상블
(아벤오케스트라)

- 내 진정 격정 지치고
- 어머니 날 위한 기도
- 축복의 노래

◆ 5부예배
테너 서영애
(고등부찬양단 솔로리스트)

- 내 근심 격정말라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여려 해 동안 주 떠나
- 주의 기도

총현 중보의 창

①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원로목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고역자들과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멀거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② 2월 22일-24일에 진행되는 '제1회 목회자간담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여 각 교회가 복음과 리더십의 회복을 통해 갱신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③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단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신실히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소서.

④ 99년도 전반기 성경연구원의 각과정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99년도 전반기 총현 소속장학생들을 선별하여 주님의 선택신 뜻에 따라 전국일꾼을 양성하게 하소서.

⑥ 2월 28일에 있을 학습·세례식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에 참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창민

■ 원로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환 김동석
김필수 전형훈 김재철 이순수 정갑삼
정현민 조문환 조희수 김동하 차명준
김병태 김인식 김상현 서광진 이영학
정형성 박노철 이준경

■ 협동목사

신영배 박형용 노봉민

■ 신사

김오수 안석원 김영태

■ 집사

김기리 열현일

■ 원로전도사

이두란 최순복

■ 예전도사

· 성령의 현정남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 박옥민 최희재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 윤운익 오정숙 오인숙 김옥을 한영준
· 박종화 김영숙 김복순 최영민 김인식

■ 고전전도사

박영진

■ 교육전도사

한운일 김경미 송현식 김창중 조재민
허용구 이우환 박명수 이종대 김윤식
김진숙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이석현

■ 원로전도사

유병태 김형선 이기성 김철원 고은빈
최영길 강기영